

민요

차례

1. 노동요	8) 출비는소리
1) 밭가는소리	9) 흙섞는소리
2) 밭볼리는소리	10) 물질소리
3) 검질매는소리(1)	2. 의식요
4) 검질매는소리(2)	1) 상여소리
5) 아웨기	3. 유희요
6) ㄹ레ㄹ는소리	1) 애기 흥그는 소리
7) 웨모는소리	2) 창부타령

성산 고성리에서 민요를 조사하는 동안 도움을 주신 분으로는 먼저, 김정길 할아버지(67세)가 계신다. 이분은 고성리에서 태어나 자라셨고 현재 농업에 하신다. 민요는 따로 배우신 것은 아니고, 7세 때 4·3이 일어나서 학교에 못 다니시고 일 다니시면서 동네 어른들 소리를 귀로 듣고 흥내 내어 익히신 것이다. 슬하에 딸 넷이 있는데 지금은 다들 시집가서 내외만 따로 살고 계신다. 그의 부인인 신순안 할머니(67세)도 노래를 잘 기억하고 계셔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 그리고 현 잠녀 회장이신 홍삼순 씨(68세)와 주위에서 노래를 많이 알고 있다고 인정하는 장광자 할머니(65세)께서 후창을 하셔서 어렵지 않게 채록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세에 난산리에서 시집오셨던 오홍생 할머니(82세)께서도 도움을 주셨다.

1. 노동요

1) 밭 가는 소리

소리: 김정길(남·67세)

이 췌야 저래 끈짜흔게 잘 걸라
 (그른 이제 밭 가는데 끈짜흔게 잘 가야될 거 아니라. 가다가 익은넝더
 래 가곡 쉐넝더래 가는다)
 어! 익은넝더래 익은넝더래 올라사라
 어! 어허! 이거 또 잘못감꾸나 쉐넝더래 올라사라
 (가면서 허는다)
 어 허~ 어허~ 허~ 멩에 다 왔구나 이레 돌아사라
 (돌아서면은 벅을 틀어. 툭툭. 흑 부똥 걸 영 틀거든)
 어~ 허 제 자국드레 들어사라
 (그면은 뭘 익은넝이나 쉐넝 가려서 동여가지고 이제 허면은)
 어~ 어~ 제대로 잘 걸으라
 어어~ 어어~ 어~ 요너러 췌야 어드레 감시니 익은넝드레 느려사지
 말앙 쉐넝더래 올라사라
 (여기서 동기면서 허거든)
 어~어 어어~ 익은넝드레 돌아사라
 (계민 왼쪽드레 영 돌아서서. 가려서 동경.)
 어~ 어~ 이 췌야~ 제콜로 들어사그네 저래 걸어가라

2) 밭 불리는 소리

소리: 김정길(남·67세)

어~ 어~ 어~ 요너르 모시들아~ 요조팓 불리젠허난 어~ 허~

어~ 월~ 월~ (월~ 월~ 월~)
 어~ 어~ 허 앞이 테우리랑 선상메질일랑 잘 7리어~치라
 월~ 월~
 어~ 어~ 어~ 높은디를 좇이명 조근조근 불라들라 어~ 어~
 어~ 월~ 월~
 어~ 어~ 어~ 새끼청산 앓인안개가 조욱하게 지엿구나
 어~ 어~ 어~ 앓인안개가 걷어지는것 보난에 스오시가 근당했구나
 월~ 월~ 월~
 이젠 설름은 다 끝났구나마는 좁씨는 구석으로~ 다 뿌러지나
 허~ 어~ 허 저쪽 구석으로 모시랑 테우리가 무시걸 햄시니 저레 앓
 아들라
 어 허! 요녀러 동생이 어디로 갈라지젠!
 어~ 어~ 허 가불름으로 들어사그네~ 조근조근 불라가명 어~허 ~
 월 월~

3) 검질매는소리(1)

선소리: 김정길(남·67세)

훗소리: 홍삼순(여·68세), 신순안(여·67세), 장광자(여·65세)

어 어~허 어 허~야
 검질짓고 골르른발에
 어허~야 어허야
 어 허~어~야
 앞명에랑 들어오고
 뒷명에랑 나고나가라
 어~허야 어~허요
 새끼청산 물방아지듯
 어 어~야 에~에요

콩당콩당 잘도나짓네
어~어야 어~어요
검질박박 매여가멍
엉~허야 에~에요
즈진씨랑 슈아가멍
어~에야 에~에요
흔발두발 이어가멍
엉~에야 에~에요
어 허~양 어허~로다
에 헤~야 에~에요
팔자좋다 호걸틀아
에 헤~야 에~에요
나난날에 놉도냥고
앵~에~야 에~요
나난시에 놉도냥고
에 에~야 에~에요
놈난날에 나도난듯
에~에~야 에~에요
무슨날에 난팔전디
앵~에~야 에~요
검질박박 매여가멍
엉~에~야 에~요
흔발두발 물러앉앙
에~에~야 에~요
이내팔저 무슨팔저
앵~에~야 에~에요
어~허양 이 우리역군
에~에요 어~어요
시간도 다되엄구나

에~에요 에~에요
신유시가 되엇으난
에~에야 에~에요
이제라근 집에가게
앙~어야 에~에요
엉허~어 어허~로당
에에야 어허요

4) 검질매는소리(2)

선소리: 신순안(여·67세)

훗소리: 김정길(남·67세)

검질짓고 굴너른밭에
앞명에랑 들어나오라
어~허야 어~허야
뒷명에랑 나고나가라
어~허야 어~허야
놈도놈도 낱건마는 나는 무슨 팔자인고
아~하얏 어~으흥

5) 아웨기

선소리: 김정길(남·67세)

훗소리: 홍삼순(여·68세), 신순안(여·67세), 장광자(여·65세)

아~아~야 어~허~어
아~아~야 에~헤~요
놀고~가자 놀고~가자
아~아~야 에~헤~요

섬지코지에 놀던~서낭
아~아~야 어~어~요
섬마루에 놀든 서낭
앙~아~야 에~에~요
놀고~가자 놀고나가자
앙 아~야 에~양
앵~에~야 어~어~요
백기코지에 놀든 서낭
아~아~야 에~에~요
허~허~어 놀고~가자
어어~야 에~에~요
건네기코지에 놀던~서낭
아~하~양 어~허~요
아~아~야 에~에~요
물코 아래 놀든 서낭
아~아~야 에~에~요
어 허~ 놀던~서낭
어~허~야 에~에~요
올껏이 놀든 요 서낭도
아~아~야 에~에~요
어~허~양 놀고~가자
앙~아~야 어~어~요
벗름 아래 놀든 서낭도
앙~아~야 에~에~요
놀고~가자 놀구나가자
앙~아~야 에~에~요
오등에코지에 놀든 서낭도
아~아~야 에~에~요
놀고가자 놀고~가자

아~아~야 어~허~요
 신양리해수역에서 놀든 서낭
 아~아~야 에~에~요
 석곡코지에 놀든 서낭도
 앙~아~야 에~에~요
 아~하~양 어허~야
 아~아~야 어~어~요
 성산 축항 놀든 서낭
 앙~아야 에~에~요
 오저리에도 놀든 서낭
 아~아~야 에~에~요
 어허~양 어허~야
 어 허~야 에~에~요
 성산 축항 놀든 서낭도
 아~아야 에에~요
 오늘 놀고 돌아가자
 아~아~야 에~에~요
 아~아~야 에~에~요
 어~허~양 어~허로다

6) ㄱ레 ㄱ는 소리

소리: 신순안(여·67세)

어~허어~ ㄱ레~
 요 곡석이랑은 널아침 밥먹게 곶아보게
 곶아그네~ 느네들 널 아침에 죽썰주마
 이어도 고레~ 이어도 고레~
 요눔으 설른 애기들아 이거 곶앙 죽썰먹젠~
 나 피덜 쏟아진 요 불쌍헌 애기들아~

7) 췌 모는 소리

소리: 김정길(남·67세)

어~ 어~ 요녀러 믰시들아
관자판머루 동산우에 올라가건 어~ 어
맷달음을 거병지 알로 느려살라 어~ 어
장돌매기 길계평 앞에가는 믰시는 가명 혼직 오명 혼집 틀어먹엄구나
마는
어~ 저늬이 몽생이 송아지는 어디레 갈라지젠 해염시니
어려~어 어려려~
장돌매기 길을 넘어사난 췌승도 술이나 어디로 들어갈거네
어~ 어~ 어려려려려
요 막주기동산은 넘어왔구나마는
우리 믰시들은 그레는 아니가나부난에 잘 몰람구나
어~ 어~ 신술동산에 보난에 개나물물은 붓다불고
믰시들은 물먹구쟁해였구나마는
개나물까지 가난에
어~ 어 어려려려려
스오시가 다뒤어부난에 믰시들은 목물란 들어가는 풀도 아니 틀영
공쟁이못 골목으로 들어간에
어~ 어려려려려~
공쟁이못 올라서난 막머루 동산으로 올라간 보난에~ 어~
물이신 못에는 믰시가 솥박 들어서부난
아명해도 우리 믰시 압막앙 샷다근
저 믰시들 나간후제 틀여몰아살로구나
어- 어~ 이제는 믰시들이 나가난 우리 믰시도 물통드레 몰아가게
어려려려~
직구물에 들어서난에

앞인 물먹은 믰시는 나오고
뒤에 있는 믰시는 산디삭은 아침먹은 출을 족곡조곡 새겜구나
이제는 사람도 배가 고픈때가 돼난
보리밥 혼사발 허곡 된장깨미 혼개미 앓아가근
그 물 거려근 줘양 정심이엔 먹엉
쉐들 새기는 동안에 사람도 믰시 수정도 새어보고
어~ 허당 보난에 신유시가 다뒤겜구나
어~ 신유시가 다뒤부난 이젠 느려갈 시간도 다뒤겜구나
어~ 허~ 노려가자~ 어랴~

8) 출 비는 소리

소리: 김정길(남·67세)

요녀르~ 출비젠 허난에~
하늘높은줄모르는~ 출이로구나~
어~ 어~
요 출랑 먹거들랑 암쉐가 먹을때랑
볼락볼락허게 황부랭이나 털어지라
엇~! (이건 데쓰는 소리라.)
어~ 어~ 출은 비젠 허난~
하니브름이 건들~건들~ 불어온다
하니브름 한 서방이 터져가지~고
요녀르 출은 벨아척은 과라그네
못뭍으켄 허여질로구나
어 엇차!
어-흐~
뒤에오는 역군은 무시걸 햄시니 재기 쫓아오라
어 엇차!

9) 흙 쉬는 소리

소리: 김정길(남·67세)

어~ 동넛아지망네~ 물질어다~줍서~
어~ 앞에 오는 물허백이랑 안쪽으로 받아들라
어~ 어~ 어
뒤에 오는 물허백이랑은 뒤터레라도 받아들멍
어~ 어~ 흐 두번 질어오난
아지망네~ 허기도 버친거닭다
어~ 어~ 흑질 밭에 만디귀
흐낙씩이라도~ 안내어가멍 흐번만 더질어다줍생허게
이~ 끼라도 안내멍
흐나 두개~ 들어오건
요집짓어 삼년~만에
아덜랑 낱건 효자 낱고
뜰랑 낱건 열녀를 낱서
어~ 어~ 어~야
황췌랑 낱건 노랑부랭이
어~ 어~
삼년 후에~ 영웅이 뵈로구나

10) 물질 소리

소리: 홍삼순(여·68세), 신순안(여·67세), 장광자(여·65세)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허이
새끼청산 절밀어가는
어야디아

우리배는 잘도간다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어야디야
 이어도사나
어야디야
 이어도사나
어야디야
 이어도사나
어야디야
 이어도사나
우리어머니
 날날적에
무신날에
 날날던고
이어도사나
 이어사
날날던가
 이어사
이어도사나
 이어사
어떤날에
 쳐라쳐라
날날다고
 쳐라져라
올로뱅뱅
 돌아진섬에
한푼두푼
 물질하여
한푼두푼
 모인금전
정든임 술값에

저라저라
다들어간다
이에도사나
저라저라
우리 배는
잘도간다
으
이에도사나
이에도사나
이어싸
이에도사나
이에도사나
이에도사나
이에도사나
쳐라쳐라
쳐라쳐라
너도가야
올속에
이에도사나
이어사
이에도사나
이에도사나

2. 의식요

1) 상여소리

소리: 김정길(남·67세)

영이기가 왕진유탉 제진결레 영결종천 야!

어 어~ 어~
간다간다 나는간다
정든고향 두에두고
나는가네 나는가네
정든자식 두에두고
나는간다 나는간다
맹년이철 돌아오면
푸습새는 오건만은
요인생은 못오는길이다
어허~렁차 어허~렁차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설움을마라
내년이철 춘삼월웨연
너는다시 피건만은
우리인생 한번가면
돌아오기 만무하다
어 허~ 어허~로다
인간백년 다살아도
단사십도 못산인생
어제오늘 설튼몸에
저녁마저 병이들어
부르는것은 어머니요
찾는것은 땡수로구나
인삼녹영 약을쓴들
약떨어진들 잇을소냐
무녀불러 굿을한들
굿떡인들 잇슬소냐
판수불러 경익은들
병이거기 잇을소냐

제비씩을 심고시듯
명산대천 찾아가서
상판에다 모욕하고
합탕에다 수웃을신고
춧대한상 벌여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전 비나이다
간다간다 나는간다
가족들을 두에두고
나는가네 나는가네

3. 유희요

1) 애기 흥그는 소리

소리: 오홍생 (여·80세)

자랑자랑 왕이자랑
우리 아기 잘도 잔다
멍멍개야 짓지말고
옥교타라 울지말라
우리아기 잠든얼굴
곱게곱게 잠을자라
우리애기 잘도잔다
우리애기는 못도잔다
자장자장 우리아기
착훈아기 잠도잘도잔다
(갱훤명 훈저 흥글주. 훈저 자블라 일허레 갈거여.)
잘자게허여줍서 할망손지우다

2) 창부타령

소리: 김정길(남·67세)

우리동네 살장구는 오동나무 살장군데
한번만 똑딱이면 오만간장이 다풀린다
얼씨구씨구씨구 저럴씨구 아니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아니놀지는 못하리라
형님형님 사촌형님 시집살이 어쩔디가
아고야 동생아 말두나마라
우리들이 상에 수저놓기도 어렵더라
세살먹은 시동생의 말귀도 어렵더라
에~하니 시누시에 의논하기도 어려워라
나이어린 낭군님은 접대하기도 어려워라
얼씨구~ 절씨구 좋네 아니놀지는 못하리라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설워마라
내년이철 춘삼월되면 너는다시 피건마는
우리인간 한번가면 다시오기도 어려워라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네 아니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쓰지도나 못하겠네

춤잘추는건 한량ियो 춤못추는건 개망나니
개를잡아 망나니냐 소를다잡아서 망나니냐
개도소도 안잡았는데 망나니말이 웬말이냐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네 아니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쓰지도나 못하겠네

신년부국때 떠나실적에는 다시못올줄 알았더니

한이월 해방이틀 연락선을 집어타고
부산이라 가고나보니 거리거리에 만세소리라
문전문전 태극기라
서울이라 운동장에는 삼천만동포 다모였는데
우리야낭군님 어데를가서 원즈폭탄이나 맞았을까
외국유학이나 갔으리까
가마속에 누웠던배가 열문 그치면 나오는데
우리집 서방님 어뎠잖나
얼씨구~ 절씨구 좋네 아니놀지는 못하리라

■조사자: 광대영(03), 김익신(03), 김진옥(06), 강현정(06), 김수진(07),
김우성(07), 오동찬(07), 양은영(07), 강소라(07)